

## 중난하이 회동으로 방중 마친 트럼프·시진핑…협력 성과 강조(종합)

등록 2026.05.15 16:55:01



[베이징=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걷고 있다. 2026.05.15.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지도부의 핵심 시설인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중남해)에서 만나 양국 협력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양국이 협력을 통해 각자 발전할 수 있다며 공존을 강조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중을 통해 많은 문제를 해결했다면서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1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양 정상은 이날 오전 중난하이에서 가진 소규모 회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방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중·미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 관계의 새로운 위치를 공동으로 확정하고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을 유지하며 각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서로의 우려를 적절히 해결하는 데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면서 "국제·지역 문제에 대해 소통과 조정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중·미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평화 공존과 협력 상생을 실현하고 올바른 공존의 길을 걷는 것이 양국 인민의 바람이자 세계 각국 인민의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시 주석은 "중미 양측은 협력을 강화하여 각자의 발전과 부흥을 촉진할 수 있다"며 "양측은 우리가 이룬 주요 합의를 잘 이행하고 현재 어렵게 얻은 양호한 흐름을 소중히 여기면서 방향을 정확히 잡고 간섭을 배제해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저를 중난하이에 초대해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며 "이번 중국 방문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잊을 수 없는 매우 성공적인 방문이었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베이징=AP/뉴스시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만나 함께 걷고 있다. 2026.05.15.

아울러 "양측은 일련의 중요한 합의를 이루고 여러 협정을 체결해 많은 문제를 해결했다"면서 "이는 양국과 세계에 매우 유익하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 주석은 저의 오랜 친구이고 저는 시 주석을 매우 존중한다.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었다"며 "미중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시 주석과 계속해서 진지하고 깊이 있는 소통을 유지하고 워싱턴에서 시 주석을 맞이하기를 열정적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또 이날 일부 지역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전날 정상회담과 텐탄(天壇·천단)공원, 국민만찬 등의 일정을 마친 양 정상은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중난하이에서 차담을 겸한 소규모 회담과 업무오찬 등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1시(현지 시간)께 전용차 '비스트'를 타고 중난하이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시 주석과 함께 10분가량 정원을 산책한 뒤 소규모 회담을 진행했다.

중난하이는 베이징시 서청(西城)구에 있는 옛 황실 정원으로 자금성의 서쪽에 붙어있는 곳이다. 특히 시 주석의 집무실을 비롯해 국무원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등 핵심 기관이 들어서있어 중국 권력의 심장부로도 일컬어진다.

양 정상은 중난하이 내부를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이따금씩 멈춰 정원의 고목과 장미 등을 감상했다.



[베이징=AP/뉴스시스] 방중 일정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서 귀국편 전용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6.05.15.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방문이 즐거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또 정원의 장미들을 가리켜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장미"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정원이 '조용한 계곡'이라는 뜻이라면서 정원에 관심을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장미 씨앗을 보내겠다고 했다. 또 일부 나무가 1000년 넘게 자라고 있다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오래 사느냐"고 되물기도 했다.

시 주석은 이날 2017년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러라고 리조트에 초청된 것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중난하이로 회담 장소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다른 세계 지도자들이 자주 이곳을 방문하는지 묻자 시 주석은 "매우 드물게"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문한 것을 일례로 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내 정자에서 대화하는 동안 시 주석에게 "놀라운 방문이었다. 많은 좋은 결과가 있었다"며 "우리는 환상적인 무역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말했다. 오는 9월 24일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을 재차 초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란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이란에 대해 논의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매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지 않느냐"며 "우리는 그것이 끝나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들이 핵무기를 갖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난하이에서 진행된 회담과 오찬은 총 3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로써 2박3일간의 방중을 모두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으로 이동한 뒤 이날 오후 2시30분께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귀국길에 올랐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